

모퉁이들선교회 기도제목(8/2)

1.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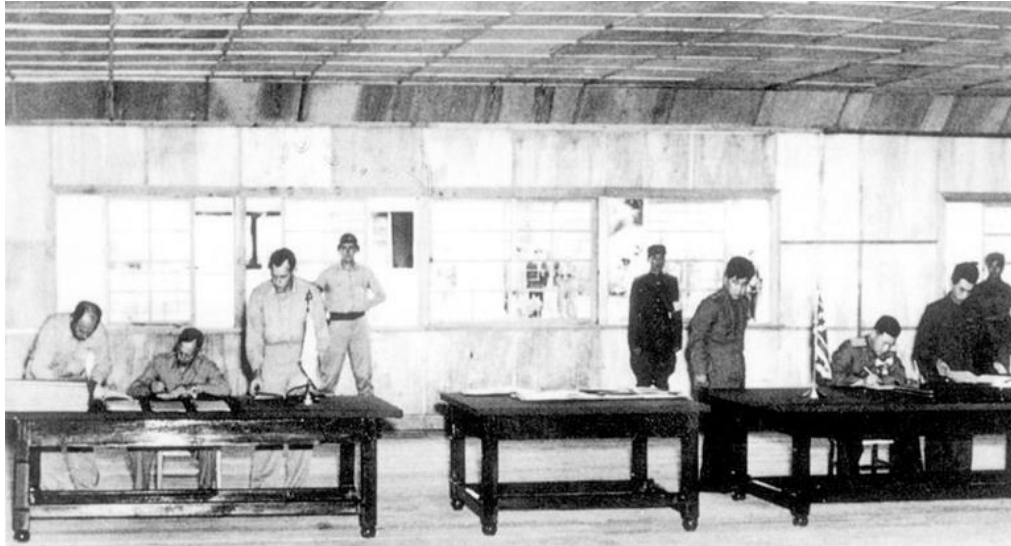
< 북한교회 성도들의 소식 한가지를 나눕니다.>

국경 지역에 살면서 중국을 드나들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남동생이 먼저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북한에 있는 누나에게 복음을 전한 경우였습니다. 초신자에 불과한 남동생이 자기 지식으로는 전도가 힘들자 누나를 데리고 다시 중국에 나왔습니다. 밤을 세워서 성경을 읽고, 밑줄을 그어가며 말씀을 외우던 그 형제는 북한에서는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저녁에는 꼭 감사기도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자려고 했더니, 일곱 살짜리 딸이 와서 “아버지, 오늘은 왜 기도를 안 합니까?”라고 말해 주어서 그날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형제는 황해도 쪽 지하 성도를 만나러 갔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누나는 동생이 천국에 갔기 때문에 자기는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전도했고, 더 과감하게 주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믿음으로써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께 인증을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만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보이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고 있다.”

하신 말씀으로 지금도 북녘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순교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북한의 모든 감시와 통제를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북한의 모든 백성이 보게 하시고, 순교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피 흘림으로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케 하옵소서.

2. 이제 굳게 닫힌 북한의 문을 여시옵소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량 국가이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촉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물결은 북한의 고립으로 이어졌고, 주민을 더욱 큰 고통에 빠트렸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며 희소한 자원을 낭비하고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난에 봉착했음에도 경제 발전은 뒤로 한 채 김씨 체제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고통으로 점철된 금단의 땅, 북한의 문이 열려 남북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그때에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 것이니 나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강한 자에게 사로잡힌 자도 빼내어지고 폭군에게 략탈된 것도 건져내어질 것이니... 그때에 모든 육체는 내가 여호와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리라”

이사야 49장 23~26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북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70년이 흘렀건만 여전히 큰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북한을 이제는 건져 주옵소서. 사로잡힌 그들을 주의 의로운 팔로 빼내어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각종 사회적 장벽과 규제를 무너뜨려 주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로 그들의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3.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절반 이상이 기독교 관련



“2022년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은 여전히 전 세계 최악이다. 기독교가 특히 종교적 박해에 많이 노출돼 있다. 북한 당국은 신앙 행위를 정치적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에 고문과 살해 등으로 처벌한다. 수용소에 기독교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온성수용소 출신의 한 탈북민은 약 50~60% 수감자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와 접촉한 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연례보고서에 실린 내용이다. 북한 성도들이 박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북한에 복음이 흥왕케 되기를 기도한다.

“나에게 닥쳤던 일들을 보았거니와 내가 그 온갖 박해를 견뎌냈고 주께서 나를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자들과 협잡군들은 서로 속이고 속으면서 더 악해질 것이나 너는 이미 배우고 확신한 것에 계속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1~14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이 박해받는 북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해에서 건지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믿음을 굳건케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들의 순전함을 받으셔서, 북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옵소서.

4. 청년돌격대, 살림집 건설 현장에서 이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강도 높은 노동에 내몰리다 보니 아들이 일하는 청년돌격대 소대에서 집으로 도망간 청년이 지난달 말에도 세 명이 있었다. 돌격대 소대장이 이들을 데리러 신의주에 왔으나 영양실조로 집에 누워있어 그냥 돌아갔다.” 올해 2 월 착공한 평양 화성지구 2 단계 1 만 세대 살림집 건설, 서포지구 살림집 건설 등에 동원된 청년돌격대원들이 고된 노동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소개했다. 고통의 울부짖음이 아닌 복된 소식이 북한에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굶어보셨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사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한 것을 당신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당신께서 오늘과 같은 명예를 얻으셨습니다”

느헤미야 9 장 9~10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북한 주민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청년의 미래를 담보 삼아 선군정치와 체제유지에 이용하는 북한의 악행을 멈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정의를 시행하셔서 북한 주민에게 주의 명성을 떨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음으로 북녘에 복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5. 김매기 전투 끝나자 농촌 주택 건설에 투입



지난 5월부터 함경북도 회령시 주민은 밥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농사를 도우라는 당국의 강요로 모내기와 김매기에 시달려야 했다. 2개월간의 '모내기 전투'와 '김매기 전투'가 끝나자 회령시 당국은 또 다시 근로자들과 가두 여성들을 농촌 살림집 건설에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돗물까지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회령시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북한 주민이 강제 노역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기도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손을 드소서 억눌린 자들을 잊지 마소서... 당신은 보고 계십니다 참으로 당신께서 괴로움과 슬픔을 지켜보시고 손수 그것을 처리하시매 약한 자들이 당신께 몸을 맡기니 당신은 고아를 돕는 분이십니다”

시편 10편 12절, 14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억눌린 자의 괴로움과 슬픔을 감찰하시고 손수 갚으시는 하나님, 계속된 강제 노역에 지친 북한 주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행을 중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북한 주민으로 주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억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환경을 열어 주사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6. 황해남도 일부 협동농장, 논 25% 수해



최근 북한 황해남도 일부 협동농장이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용마동 협동농장과 제도리 협동농장의 전체 논 면적의 25%가 물에 잠기거나 벼모가 씻겨 나가 훼손됐다. 피해 면적을 총 658 헥타르로 볼 때 최대 약 3천 3백 톤의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태풍이 닥칠 경우 북한의 농경지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수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북한에 식량과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한다.

“내가 빛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였으며 내가 평안을 만들고 불행도 창조하였으니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여호와라 하늘아 우로부터 의의 소나기를 퍼부으라 창공은 의의 비를 내리라 땅은 열려 구원이 돌아나게 하고 의의 싹이 움트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이사야 45 장 7~8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처럼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와 만성화된 식량난이 북한 주민에게 고통으로만 남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먹을 것이 공급될 때, 식량이 보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도 함께 전해지게 하옵소서.

7. 열병식 훈련, 위하수에 걸릴 만큼 군인들 혹사



“일반 부대에서 3 개월 훈련하고 또 평양에 올라와서 또 3 개월 훈련합니다. 열병식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새벽 6 시부터 다음날 새벽 1 시까지 훈련하는데 90 도로 다리를 높이 차다 보니까 거의 모든 군인이 위하수가 걸립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장군님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승절 열병식에 동원되는 북한 군인의 건강과 인권 문제를 북한군 출신 탈북민들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제기했다. 김씨 일가가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북한 주민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며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으니 네 발로 밟는 땅이 반드시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물림가산이 되리라 하였소”

여호수아 14 장 9 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신 하나님, 충성의 대상을 잘못 알고 섬기는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된 열병식 훈련은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지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충성하는 백성은 복된 삶을 살게 됨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